

青年期 子女의 性役割 正體感과 父母의 養育行動과의 關係

The Adolescent's Sex Role Identity and Perceived Parent Behaviors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박 선 영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부교수 정 옥 분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Fellow; **Sun Young Park**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Associate Prof.; **Ock Boon Chung**

< 목 차 >

I. 問題의 提起

II. 理論的 背景

III. 研究 方法

IV. 結果 및 論議

V. 結論 및 提言

參考文獻

< Abstract >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1) Is there any relationship between the adolescent's sex role identity and perceived parent behaviors? 2) Is there any gender differences in perceived parent behaviors? 3) Is there any interaction effect between sex role identity and gender in perceived parent behaviors?

109 male and 101 female undergraduates from the five universities in Seoul served as subjects in this investigation. Subjects were administered the Parent Behavior Form (PBF) and the Bem Sex Role Inventory (BSRI) in counterbalanced order.

A 4 (sex-role identity) \times 2 (gender)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was performed for the perceived paternal and maternal behaviors separately. The simultaneous confidence intervals for pairwise comparison were followed when the MANOVA was significant. In testing all hypotheses, .05 was used as a significance level in this study.

For the perceived paternal behaviors, 1) The androgynous group, compared with the undifferentiated group, reported greater father warmth, active involvement, greater encouragement of cognitive independence, cognitive curiosity, cognitive competence, achievement control, and conformity. 2) The androgynous individuals showed higher father warmth, cognitive independence, curiosity, and cognitive competence than the feminine individuals. 3) The androgynous individuals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ly higher father warmth than the masculine individuals.

For the perceived maternal behavior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ender groups in conformity. Daughters reported higher conformity than sons.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sex-role identity and gender, however, was not found to be significant.

I. 問題의 提起

오랜 동안 男子와 女子는 身體的으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心理的으로도 다를 것이라고 믿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家庭과 社會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變化들은 과연 이제까지 생각해 왔던 것 처럼 男女가 生理的으로 뚜렷이 區別되는가에 대하여 생각하게 한다¹⁾.

이러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性差 뿐 아니라 남녀간의 類似點과 동성간의 差異를 概念化 시킬 수 있는 좀 더 포괄적이고 정교한 性役割 모델이 필요하다. 그러한 모델은 生物學的인 性과는 관계없이 긍정적인 女性性, 男性性이 모든 사람에게 存在할 수 있다고 假定한다. 긍정적인 女性性 차원과 男性性 차원의 共存, 그것이 바로 兩性性이다. 이러한 兩性性은 과연 부모의 어떤 養育行動에 의하여 發達이 促進되는가?

전통적으로 남성적, 여성적 행동은 同一視 過程의 產物로 여겨져 왔다. 이들은 性類型化를 同性父母에 대한 同一視, 愛情的 關係와 깊이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자신의 성과 반대되는 성에 類型化 되는 것은 異性父母와의 同一視를 통해 성역할을 획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만약 그렇다면 양성적인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게 똑같이 동일시하는 것으로 假定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문제가 된다.

社會學習理論에서는 동일시 과정을 전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보다는 직접적 強化, 模倣, 그리고 代理學習 經驗에 의하여 性類型化된 특성들이 獲得된다고 설명하였다²⁾. 부모들은 둘 다 자녀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으며 強化 代行者로서 행사한다. 남성적인 사람들은 부모의 남성적인 특성을 模倣했거나 혹은 부모가 이들의 남성적 특성을 강화해 준 경우이다. 양성적인 사람도 부모를 동일시하는데 있어 缺陷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여성적, 남성적 특성 모두를 強化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양성성은 부모 모델링과 관련이 있으며, 또한 부모가 情緒的, 愛情的 행동은 물론 成就 指向的이고 認知的인 행동을 격려함으로써 획득된다. 여성적, 남성적 특성 어느 것도 나타내지 않는 未分化된 사람은 부모 또한 어떤 특성도 나타내지 않으며 자녀에게 여성적, 남성적 특성 어느 것도 強化해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의 선행 연구들은 부모 변인을 傳統的인 성역할 개념 즉, 남성성이 높은 사람은 여성성이 낮고, 여성성이 높은 사람은 남성성이 낮다는 相互排他的이고 兩極的인 성역할 개념과 관련시켰다^{3,4)}. 그러나 양성적인 자녀와 부모간에는 兩極的인 남성성-여성성 尺度로는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關係가 있다는 것이 시사되고 있다⁵⁾. 예를들어 이제까지 높은 남성성 혹은 여성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왔던 부모의 養育方式이 사실은 양성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兩性的 性役割 正體感은 높은 수준의 自尊感^{6,7)}, 自我實現性⁸⁾ 및 道德性 發達⁹⁾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 행동과 자녀의 양성성과의 관계가 특히 흥미롭다.

한편 아동은 아동 자신의 여러 원인 및 복잡한 心理的 過程을 거치기 때문에 부모의 실제 행동과 아동이 知覺한 부모의 행동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¹⁰⁾. 부모의 양육 행동은 아동이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 즉,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실제 행동보다 자녀의 발달에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¹¹⁾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 특성에 대한 자녀의 지각과 자녀의 아동기 이후 성역할 특성간의 관계는—비록 아동기 때의 경험이 累積된 결과일지도 모르지만—고등 학생과 대학생에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¹²⁾.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기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과 그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으로, 研究 問題는 다음과 같다.

첫째, 靑年期 자녀의 性役割 正體感和 그들이 지각한 부모의 養育行動 간에는 관계가 있는가?

둘째, 청년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性別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청년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에 있어서 성역할 정체감과 성별간에는 相互作用 효과가 있는가?

II. 理論的 背景

1. 傳統的 性役割 概念으로 부터 兩性的 性役割 概念으로의 變化

傳統的 입장에서의 성역할 개념화는 주로 남녀의 差異를 강조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남자와 여자는 遺傳的, 身體的으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心理的으로도 다르기 때문에 남녀가 心理的 性差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며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져 왔다.

이 때 男性性은 전통적으로 남성과 관련되어 온 특성들을, 女性性은 여성과 관련된 특성들을 의미하였다. 남성성은 目標 指向的이며 主張的인 行動, 자기 발달과 他人으로부터의 分離(道具的/機能的)로 묘사되었으며, 여성성은 感性的이며 情緒的이고 利他的이며 相互 關係的(表現的/親和的)으로 묘사되었다¹⁾. 이러한 여성성, 남성성은 性과 관련하여 兩極 概念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性役割 類型性이 바람직하기에 대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의문을 제기하여 왔다. Mead¹⁴⁾는 특정한 인성 특질이 남녀 어느 한 성에게만 적합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문화적으로 기대된 것과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인위적인 갈등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Broverman 등의 연구¹⁵⁾에서 임상 심리학자들은 理想的인 男性像과 理想的인 成人像을 獨立的, 客觀的, 自己 確信的, 論理的 등 道具的인 용어로 정의하였다. 만약 그렇다면 表現的 特성을 理想으로 하는 여성의 경우 이상적인 成人이 되고자 道具的 指向性을 추구하려 한다면 자신의 여성적 正體感에 疑問을 가지게 된다. 반대로 표현적인 여성적 지향성을 따르고자 하면 사람들은 그 여자를 成熟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현 사회의 구조는 한 개인에게서 남성과 여성의 특질을 동시에 요구하는 構造를 변화하고 있다. 또한 남자들은 여자들은 모든 인간에게는 이 두가지 특성

이 어느 정도 共存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긍정적인 남성성과 여성성 차원이 한 개인 안에 共存한다는 개념이 바로 兩性性이다.

양성성은 본래 하나의 유기체 안에 남성과 여성의 특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雌雄同體를 의미하였으나, 지금은 신체적, 성적인 의미보다는 社會, 文化的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원리로 볼 때 양성성은 한 개인이 狀況에 따라 적절하게 남성적이면서 여성적이고, 도구적이면서 표현적이며, 기능적이면서 친화적일 수 있다고 예측된다. 물론 중요한 것은 남성성과 여성성 두 영역 모두가 기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개의 相補的인 영역 중 어느 하나의 능력을 制限하는 것은 개인의 잠재성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방해가 된다.

심리적 양성성의 개념은 남성성과 여성성 차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몇 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¹⁾. 먼저 남성성과 여성성이 결합하여 전통적인 성역할과는 다른 독특한 개인적 특성과 양식을 만들어낸다는 결합 모델(conjoint model)이 있다. 결합모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調節(modulation)과 均衡(balance) 모델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인지도 양성성 개념으로, 남성성과 여성성 중 어느 하나만 나타났을 때 그 개인은 극단적인 경향이 나타나지만, 두 차원이 함께 나타날 때는 서로 상대 차원을 완하시켜 준다. 따라서 남성성의 극단적인 공격성과 지배성은 여성성의 타인에 대한 민감성으로 調整되며, 마찬가지로 여성성의 과도한 복종은 남성성의 독립성과 주장성으로 緩和되다.

둘째, 현재 가장 많이 수용되고 있는 附加的 모델(additive model)이다. 이 관점에서는 양성성을 獨立的인 男性性和 女性性的 총합으로 본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多多益善”이라는 견해로 양성적인 사람은 남성성, 여성성이 모두 낮은 사람보다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이때 양성적인 사람은 남성적, 여성적 특성을 모두 표현할 수 있으나 각기 다른 時期에만 표현이 可能하다.

셋째, 좀 더 최근의 것으로 다중 모델(multiply model)이 있다. 이 모델에서는 남성성, 여성성이 結合하면 아마도 두 차원의 相互作用으로 인하여 단순히 남성성, 여성성의 수준을 이는 것 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뜻밖의 속성이 出現하게 된다는 것이

다¹⁶⁾.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양성적인 사람은 각기 다른 시기에 남성성이나 여성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특정 시기에 남성적도 아니고 여성적인 것도 아닌 독특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假定한다.

위와는 달리 발달적 견해를 채택하는 모델들이 있다. 性役割 超越(sex-role transcendence)에 대한 사상을 나타내는 데 있어, Hefner 등¹⁷⁾은 발달적 접근법을 취한다. 1단계는 未分化된 性役割 段階로, 아동들은 성역할과 성유형화된 행동들에 대해 未分化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들은 생물학적인 성에 따라 文化的인 制約이 가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2단계에서는 이러한 미분화된 개념이 分化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부모(사회)의 價値觀을 깨닫게 된다. 여러 행동들의 선택 범위가 學習됨에 따라 兩極화된 성역할 行動과 思考를 한다. 그 후 몇몇 사람들은 성역할 발달의 세번째 단계인 性役割 超越 段階에 이른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 성역할 기준을 위반했을 때 받는 처벌을 두려워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인간 특성을 표현하는데 자유로움을 느낀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전이할 때는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지만 環境의 지지와 후원이 따른다. 그러나 2단계에서 3단계로 전이할 때는 이와 상등한 환경적 지지가 없다.

Block은¹⁸⁾ Loevinger의 自我 發達에 관한 사상을 확대하여 성역할 발달 모델을 제시하였다. Block은 점점 복잡해지는 인생을 처리하기 위하여 正體感을 확립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性役割 概念이 발달한다고 개념화하였다. 처음에는 남자, 여자라는 自己 範疇化로부터 固定 觀念의인 성역할을 획득한다. 그러나 차차 自己分析的이 되어 가면서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個人的 價値觀과 思想을 가지게 된다. 이때 자신의 價値觀에 맞게 이전의 固定된 性役割이 調節된다. 그러므로 자아 안에 여성적 요소와 남성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두 특질을 통합할 수 있는 양성성이 가장 발달된 수준이 된다.

Kaplan¹⁹⁾은 혼성단계(hybrid stage)에서 남성성과 여성성 차원이 통합하여 새로운 행동 양식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統合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特性은 원래의 차원들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아마도 그 이상을 나타낸다.

그 밖에도 양성성을 認知 圖式(cognitive schema)으로서의 양성성, 人性 特質(personality trait)으로서의 양성성, 行動의 양성성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다. 위의 견해들은 양성성이라는 용어를 각기 독특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서로 排地的인 개념은 아니다.

2. 父母의 養育行動과 子女의 性役割 正體感

부모는 성 유형화에 중요한 役割을 한다. 性的 명명(sex labeling)이후에, 부모들은 성 유형화된 행동에 대해 報償, 處罰을 하고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성 유형화를 촉진시킨다. 또한 부모는 아동이 성에 적합한 활동을 하는 것에 흥미를 갖게끔 능동적으로 안내를 한다.

자녀의 성역할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고전적인 이론들을 양성성에 대한 시사점과 함께 살펴 보자. Freud²⁰⁾는 유아는 비록 어머니, 아버지 양 쪽에 모두 외디푸스적으로 집착하고 同一視하기는 하지만, 남아나 여아의 最初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계는 어머니라 믿는 한편, 아버지는 외디푸스 危機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남아는 아버지의 攻撃에 대한 두려움에서, 여아는 어머니의 사랑을 잃을 두려움에서 동성 부모를 동일시한다고 하였다. 남아의 경우 아버지에 대한 동일시는 그를 모델로 삼고 그를 좋아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때 그는 아버지의 특성을 많이 가지게 된다. 비록 精神分析理論은 心理的 性差의 발달이 해부학적인 면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였지만, 모든 사람은 여성적, 남성적인 심리적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는 양성적 잠재성(bisexual potential)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다만 性差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남녀간의 유사점에 대한 생각을 더 이상 발달시키지 못하였다.

認知發達理論에서는 성역할의 學習 內容은 環境에 의해 결정되지만, 성역할의 思考 構造는 아동의 認知的 成熟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²¹⁾. “나는 남자다” 혹은 “나는 여자다”라는 自己 範疇化는 인생의 초기에 일어나 性 恒常性(gender constancy)의 감각으로, 더 나아가 개인의 성 유형화된 嗜好와 價値觀을 발달시킨다. 기초적인 성 정체감(gender identity), 성 유형화와 성 유형화된 가치관의 발달이

이루어진 후에야 아동은 同性 모델(때때로 부모)을 同一視한다. 깊은 정서적 愛着은 일반적으로 同一視의 結果로써 일어난다. Kohlberg²²⁾는 성 유형화 과정에서 부모를 별로 강조하지 않았고, 부모의 태도는 실제로 “적절한” 성 유형화 발달에 방해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만약 사람들의 사고가 연령에 따라 자연스럽게 좀 더 복잡해지고 융통성있게 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성역할에 대한 그들의 思考 역시 좀 더 미묘하고도 덜 固定觀念化 될 것이다. 만약 Kohlberg가 제안하는 바와 같이 自我 正體感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형화되지 않은 자아 정체감은 아마도 정형화되지 않은 兩性的인 發達로 이어질 것이다.

Mischel²³⁾은 성역할 행동은 타인으로 부터 획득한다는 것에는 Freud와 일치하지만, 그 과정을 다소 다르게 해석한다. 그에 따르면 성역할 행동을 포함한 모든 行動 學習에는 두가지 구별되는 측면 즉, 獲得(acquisition)과 實行(performance)이 있다고 한다. 남녀 모델을 통하여 아동은 자기 자신의 성에 적합한 행동 뿐만 아니라 반대성에 적합한 행동들을 認知的으로 獲得한다. 그러나 학습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성에 적합한 행동을 행하는 경향이 있는 동성 모델을 模倣한다²⁴⁾. 이는 기대되는 반응 결과가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Mischel은 아동들은 여러 성인들과 또래 모델로부터 성역할 행동을 獲得한다고 생각하였으나, 특히 父母가 중요한 모델이라고 제안하였다. 아동은 부모가 강력하다고 생각하고, 부모가 자신들을 身體的, 心理的으로 보살펴 주기 때문에 부모, 특히 자신과 더 유사한 것으로 지각되는 同性 父母의 行動을 獲得할 것이다. 동성 부모가 얼마나 성 유형화되었는가에 따라 자녀도 성 유형화된 행동을 발달시키는 傾向이 있다. 만약 동성 부모가 성 유형화된 정도가 낮고, 자녀의 남성적, 여성적 특성들과 행동을 강화해 준다면 자녀는 덜 유형화된 행동을 발달시킬 것이다. 정신 분석 이론, 인지발달 이론, 사회학습 이론 등 각 이론은 비록 상이한 형태를 취하고는 있으나 모두 다른 사람의 動機化된 모델링(motivated modeling)에 의해 성역할이 발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⁸⁾.

그러나 몇 개의 예외를 제외하고, 모델링 문헌들은 남성적 아버지는 남성적 아들을 가질 것이라는 基本

假說을 實證하지 못한다. 사실상 청년기 이전의 소년들은 어머니와 비교할 때, 아버지와 좀더 유사한 경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 자신을 아버지와 더 유사하다고 지각하지도 않는다²⁵⁾.

만약 모델링이 性役割 學習의 중요한 前驅體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직접적인 行動調成(shaping)이나 訓練은 어떠한가? 이러한 증거들 역시 矛盾되어 있다²⁶⁾. 이에 대해 Becker²⁷⁾와 Biller는²⁸⁾ 단순히 아버지의 남성성이나 처벌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자녀 關係의 質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Bandura와 Walters²⁹⁾는 아버지의 처벌성은 아버지가 養育의일 경우에만 자녀의 男性性을 向上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學習理論家들이 자녀의 성 유형화에 있어서 모델링과 直接的 訓練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결과들은 矛盾되어 있어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남성성-여성성을 兩極으로 보고³⁰⁾, 이들 여성성, 남성성을 부모 변인과 관련시킨 것들이다. 만약 남성성, 여성성을 두 개의 獨立 次元으로 보고, 이들의 결합으로 인한 兩性性, 未分化라는 새로운 집단들을 분류하게 될 때, 이들과 부모 변인과의 관계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전 생애에 걸친 성역할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Block등¹⁸⁾은 양성적인 자녀와 성 유형화된 자녀의 발달과정을 비교하였다. 부모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하며 그들로 부터 심리적, 신체적으로 養育을 받고 있는 아동들은 부모와 일치하는 성역할 양식을 성인기에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가정에서 부모들 간에 役割 分擔을 하면 성인 자녀는 동성 부모와 비슷해진다. 한편 좀 더 복잡하고 양성적인 부모 모델을 갖는 가정의 자녀들은 한 부모 또는 양부모의 특성을 획득하여 양성적이 된다. 이러한 가정은 溫情적일 뿐 아니라 成就 指向的인 價値를 강조한다. 그러나 성 유형화되었든 혹은 양성적이든 간에 家庭의 雰圍氣가 안정적이고 애정적이면, 자녀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極端的인 남성성이나 여성성 측면은 가지지 않는다. 아마도 肯定的인 부모-자녀 관계는 安定된 自我 確信을 기본으로 하는 양성성을 발달시키도록 하여 다소 非慣習적인 특성이라도 마음 편하게 채택할 수 있게 하는 것 같다.

부모의 반대성의 요소들, 예를 들어 어머니의 獨立心, 아버지의 溫情 같은 요소들은 아동기 때의 社會化와 더불어 양성성 발달을 向上시킨다. 이것의 증거로 Kelly와 Worell³¹⁾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양성성인 여자의 어머니는 參與(involvement)가 높고 자녀에게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아버지는 統制를 하지 않고 지적 好奇心을 강조하였다고 회상한다. 兩性的인 男子는 아버지의 溫情과 參與가 양성성 발달에 필수적이었다. 비슷한 결과가 Woods³¹⁾에 의해서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女性的의 成就行動(여기서는 이것을 兩性性的의 指標로 생각하였다)에 대한 Stein과 Bailly³²⁾의 결론에 의해 직접적으로 지지되고 있다. 그들은 여러 연구들을 검토한 후에 여아는 부모가 적당히 온정적이고 적당히 높은 허용성을 보이며 성취지향적인 노력을 격려할 때, 成就指向的인 行動과 獨立心を 발달시키는 것 같다고 하였다.

부모 특성에 대한 자녀의 지각과 자녀의 兒童期 이후 성역할 특성간의 관계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³³⁾. 양성적인 학생은 아버지, 어머니를 양성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아들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특성과 특히 강한 연관이 있었으나 딸의 경우에는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이 거의 동등한 것 같다. 따라서 남성은 양성성 발달을 위해 양성적인 아버지를 좀 더 필요로 하지만, 여성은 한 부모가 양성성일 때 양성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III. 研究方法

1. 研究對象

豫備調査를 실시한 2개교를 제외한 서울의 14개 종합대학교(남녀 동수를 위해 여자 대학교 제외)중에서 난수표로 5개교를 선택하여 남녀 동수로 총 358부를 배부, 210명의 질문지를 실제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령 제한은 23세 이하로 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는 서구와는 달리 적어도 졸업이전까지는 經濟的, 情緒的으로 부모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피험자의 연령은 만 18세에서 만 23세까지로 나타났으며 만 21세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평균 연령은 만 20세이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은 부모

특성에 대한 자녀의 보고와 자신의 성역할 특성간의 관계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2. 測定道具

본 연구에서 사용한 道具는 두 가지로, 성역할 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Bem³⁴⁾의 간략한 성역할 측정도구를,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Worell과 Worell³⁵⁾의 父母 養育 行動尺度(Parent Behavior Form)를 사용하였다.

1) Bem의 성역할 측정도구(Bem Sex Role Inventory : BSRI)

BSRI는 社會的으로 價値를 두는 특질로 구성되는데 양성성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즉 긍정적 가치를 갖지만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질 때 그 문항은 여성적 척도의 인성 특질로 선택된다. 역시 긍정적 가치를 갖지만 남성에게 바람직하다고 여겨질 때는 남성성 척도로 채택된다. 그 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樣式으로 反應하는 傾向을 측정하기 위해 선택된 중성 문항들이 성정형성 측면에서 중성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채택되지 않고 단지 배경 문항으로만 기여한다.

Bem의 성역할 측정도구는 Likert type의 척도로써 자신의 성격을 얼마나 잘 묘사하느냐에 따라 1점("결코 나의 性格과 같지 않다")부터 7점("언제나 또는 거의 언제나 나의 性格과 같다")까지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채점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실행하기 쉽고, 설명하기 간단하다는 점에서 Bem³⁴⁾이 추천하는 중앙치 반분법(median-split method)을 사용하였다. 7점 Likert type 척도에 의하여 선택된 남성성 척도와 여성성 척도 문항 각각의 중앙치를 계산하여 피험자를 네 집단으로 나누었다.

여성성, 남성성 점수가 모두 중앙치 이상이면 兩性性 集團에, 여성성 점수는 중앙치 이상이면서 남성성 점수는 중앙치 이하이면 女性性 集團에, 이와는 반대로 남성성 점수는 중앙치 이상이면서 여성성 점수는 중앙치 이하인 경우는 男性性 集團에, 마지막으로 두 점수 모두 각각의 중앙치 이하이면 未分化 集團으로 分類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간략형 BSRI는 정옥분⁷⁾의 연

구에서 번안하여 사용한 그대로를 사용하였는데,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남성성 척도가 .87, 여성성 .85로 보고되고 있다. 측정도구로 BSRI를 사용한 이유는 성역할 정체감을 측정하는 여러 도구 중 여성성, 남성성을 독립적으로 생각한 先驅者的인 도구이며 신뢰도, 타당도가 만족스럽고 心理的 兩性性 測定 道具로 널리 사용되기 때문이다.

2) Worell과 Worell의 父母 養育 行動 尺度 (Parent Behavior Form: PBF)

본 연구는 Worell과 Worell이 제작한 부모 양육 행동 척도를 번안하여 예비조사를 거쳐 사용하였다. 번안의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3단계를 거쳤다. 본 연구자가 모든 문항을 번안하고 영문과 대학원생 외 1명이 그 문항들을 검토, 수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지도 교수와 상의하였다.

부모 양육 행동 척도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청년들에게 실시하여 부모의 양육 행동을 보고하게 하는 C형을 사용하였다. PBF 척도는 아버지 행동에 관한 것과 어머니 행동에 관한 것이 똑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PBF 척도는 13개의 하위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 1 참조),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다른 도구들과는 달리 認知的인 父母行動을 측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도구는 원래 3점으로 구성된 Likert type의 척도였다. 그러나 3점 척도는 너무 단순하며, BSRI의 7점 척도와 지나치게 큰 차이가 있어 평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5점 척도로 수정하였다. 부모 행동을 얼마나 묘사해주는가에 따라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5점 (“항상 그렇게 하신다”) 중에 하나를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채점은 각 하위 척도에 해당하는 문항 점수를 더한 다음, 문항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PBF 척도는 수렴 타당도(convergent validity), 변별 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 준거 관련 타당도(criterion-related validity)에서 만족할 만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³⁶⁾, Cronbach α 로 측정할 신뢰도 계수는 .643~.937로 보고 되었다³⁵⁾. 본 연구에서의 PBF척도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부모의 양육 행동을 측정하는 다른 도구들과 비교할 때, 이 척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獨

< 표 1 > PBF 척도의 신뢰도

하위 척도	아버지 행동	어머니 행동
수 용	.89	.86
적극적 관여	.83	.82
평 등	.82	.76
인지적 독립	.85	.84
호 기 심	.84	.81
인지적 능력	.79	.74
엄격하지 않은 통제	.60	.62
순 응 심	.68	.71
성취 지향	.66	.51
엄한 통제	.72	.72
처벌적 통제	.77	.82
적대적 통제	.75	.80
거 부	.65	.59

立的으로 比較할 수 있게 하며, 신뢰도, 타당도 등이 잘 確立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택되었다.

3. 實施過程 및 節次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부모 행동 척도를 가지고 豫備調査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고려대와 숭실대에서 실시하고 問項分析을 하여 判別力이 낮은 문항들을 수정(8문항), 혹은 삭제(7문항)하였다.

본 조사는 5개 대학의 도서관 열람실에 질문지를 배부, 회수하였는데, 일정한 검사 시간 제한을 하지 않았지만 대략 30~40분에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질문지는 實施順序로 인해 야기되는 효과를 排除하기 위하여 BSRI, PBF 아버지 행동에 관한 것과 어머니 행동에 관한 질문지의 순서를 변화시켰다.

4. 資料 處理

중앙치 반분법에 의하여 성역할 정체감의 유형을 4 집단(남성적, 여성적, 양성적 혹은 미분화 집단)으로 분류하고, 4(성역할 정체감)×2(성별)이원 다변량 분석(Two-way MANOVA)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의 유의 수준은 .05이다.

이원 다변량 분석에서 F값이 유의하게 나왔을 때, 구체적으로 어느 종속 변인에서 집단차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동시 신뢰 구간법(Simultaneous Confidence Intervals)을 이용하였다.

신뢰도는 고려대 전자 계산소의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으로 처리하였고, 동시 신뢰구간은 Fortran(Formula Translation)을 이용하였다. 그 외의 모든 자료처리는 SPSS/PC로 하였다.

IV. 結果 및 論議

성역할 정체감 유형별로 네 집단으로 나누기 위해 먼저 男性性 尺度와 女性性 尺度의 각 中央値를 구하였는데, 각각 3.95, 4.70이었다.

남성성, 여성성의 중앙치 점수를 산출한 후 중앙치 반분법에 의하여 性役割 正體感 유형별로 네 집단으로 분류하였는데, 남남를 합하였을 경우 양성성(28.6%), 미분화(27.1%), 여성성(23.3%), 남성성(21.0%) 집단의 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4(성역할 정체감)×2(성별)이원 다변량 분석을 사

<표 2> 아버지 양육행동 변인에 대한 성역할 정체감과 성별간 이원 다변량 분석

변량원	가설 자유도	오차 자유도	F	P
성역할 정체감(A)	42.00	561.00	1.565	.015*
성별(B)	14.00	185.00	1.676	.065
AXB	42.00	561.00	.788	.083

*p < .05

용하여, 성역할 정체감의 유형 및 성별에 따른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 행동 차이를 알아보고, 동시에 성역할 정체감과 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 보았다.

다변량 분석(MANOVA)의 경우 유의성 검증을 위해 제안된 것이 10여 가지인데, 일반적으로 假定이 위배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덜 받고 검증력이 있다(37) Pillai's Trace를 선택하였다.

1. 性役割 正體感 集團에 따른 아버지의 養育行動 知覺

다변량 분석을 하기 위해 먼저 요구되는 假定을 실험하였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정상확률도면(normal probability plot)을 통해 각 종속 변인이 정상분포임을 확인하였다. 또 동편차(homogeneity of dispersion)를 Box's M을 통해 검증한 결과 p > .05로 위의 假定이 滿足되었다.

다변량 분석 결과는 <표 2>과 같다.

<표 2>에 따르면 性役割 正體感 集團에 따라 자녀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다르게 지각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성역할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아버지 행동에서 집단차를 보이는지를 알기 위하여 후후검사로 동시 신뢰구간 검증을 하였다. 결과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왼편은 하한 신뢰 한계(confidence limit)이고, 오른편은 상한 신뢰 한계를

<표 3> 아버지 양육 행동 변인에 대한 성역할 정체감 집단의 동시 신뢰 구간 결과

하위 변인	비 교 집 단							
	양성성-미분화	양성성-여성성	양성성-남성성	미분화-여성성	미분화-남성성	여성성-남성성		
수 용	.0807/.6413*	.0059/.5861*	.2268/.8712*	-.3455/.2145	-.1247/.5007	-.0685/.5745		
적극적 관여	.1239/.6241*	-.0189/.4909	-.0663/.5223	-.3929/.1169	-.4403/.1483	-.3064/.2904		
평 등	-.0896/.4316	-.0390/.4510	.0421/.5779*	-.2094/.2794	-.1283/.4063	-.1481/.3561		
인지적 독립	.1561/.7179*	.1370/.6670*	-.0496/.5438	-.2869/.2169	-.4752/.0952	-.4246/.1146		
호기심	.1970/.7430*	.1689/.7271*	-.0180/.6200	-.2776/.2336	-.4676/.1296	.4512/-.1572		
인지적 능력	.2122/.6798*	.2280/.7080*	-.0406/.4786	-.1913/.2353	-.4621/.0081	-.4903/-.0077*		
엄격하지 않은 통제	-.2086/.2226	-.3374/.1114	-.1614/.2354	-.3490/.1090	-.1735/.2335	-.0628/.3628		
순응심	.0383/.5237*	-.1124/.3764	-.2131/.3131	-.3816/.0836	-.4831/.0211	-.3358/.1718		
심취지향	.0523/.5537*	-.0051/.4691	-.1717/.3557	-.3238/.1818	-.4888/.0668	-.4506/.1256		
엄한통제	-.1142/.3282	-.1199/.3193	-.3233/.1573	-.2228/.2088	-.4265/.0465	-.4183/.0523		
처벌적 통제	-.0481/.4561	-.0790/.4170	-.2619/.2359	-.2749/.2049	-.4579/.0239	-.4186/.0546		
적대적 통제	-.1683/.3023	-.2589/.1949	-.3942/.0822	-.3339/.1359	-.4688/.0228	-.3618/.1138		
거 부	-.3344/.1024	-.3495/.0995	-.3801/.0801	-.2401/.2221	-.2705/.2025	-.2671/.2171		

나타낸다. *표가 있는 집단은 두 집단의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 즉, 집단간에 유의한 차가 있음을 나타낸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성성 집단은 미분화 집단보다 아버지는 자신을 좀더 온정적으로 대하고, 그러한 肯定的 관심과 감정을 開放的으로 나타내며 자녀가 獨立的으로 사고하고 認知的으로 有能하도록 격려하고 자녀의 好奇心을 刺戟한다고 지각하는 등 認知的 요인과 溫情에서 더 높았다. 양성성 집단은 남성성 집단보다 아버지가 자신을 더 따뜻하게 대하며 객체로서 認定해준다고 지각한다. 남성성 집단과 여성성 집단은 단 한가지, 남성성 집단이 여성성 집단보다 認知的으로 유능하고 成就指向的이도록 격려한다고 지각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 아버지가 자신을 따뜻하게 受容한다고 지각하는 것이 兩性性 集團과 다른 집단들을 구분하는 중요 변인임을 밝혀졌다. 자녀의 성별에 따른 효과 및 性役割 正體感의 類型과 性別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관심을 끄는 것은 양성성 집단과 미분화 집단이다. 성역할 양식을 社會的으로 學習된 행동이라고 생각할 때, 미분화 집단의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잠재적인 애정원이 아니며, 또한 아버지를 模倣한 것에 대해 자녀에게 強化를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미분화 집단의 아버지가 愛情的 反應을 보이지 않는 것은 역으로 자녀가 애정적이고 따뜻한 특질을 획득하는데 손상을 입게 한다. 또 미분화 집단의 아버지는 자녀의 지적인 독립 능력, 인지적 이해 등 인지 요인에 대해 격려해 주지 않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무능하고 지적인 과제를 할 수 없다고 믿게 하기 때문에 남성적 행동에도 손상을 가져온다. 미분화 집단에 비해 양성성 집단의 아버지는 관대한 愛情과 認知的 刺戟을 보임으로써, 자녀는 아버지를 모델링하여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社會的 技術을 模倣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兩性性 집단이 여성성 집단보다 認知 要因들에서 그리고 남성성 집단보다는 溫情 측면에서 아버지를 더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도 같은 脈絡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女性性 집단은 아버지가 認知的 獨立, 好奇心, 認知的 能力등에 주의하고 강화해 주지 않음으로써 男性的 특성에 손상을 가

져온다. 男性性 집단은 아버지가 덜 따뜻하고 受容하지 않아, 따뜻한 여성적 특유에 대해 強化를 받아 보지 못했다. 또한 온정적 측면이 없는 아버지를 모델링함으로써 女性的 特性이 부족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생기는 한 가지 문제는 女性性 집단은 왜 兩性性 집단보다 아버지의 애정을 덜 보고하느냐이다. 여성적인 남성은 아버지가 자신을 따뜻하게 대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비매력적인 상황에서는 반대성과 동일시한다¹⁸⁾. 여성적인 여성은 同性 父母와 동일시하려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동시에 아버지가 자신을 온정적으로 대해 주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된다.

결국 아버지의 양육 행동에 대한 지각에서 兩性性 集團만이 다른 세 집단과 차이가 있으며 남성성, 여성성과 미분화 집단간에는 뚜렷한 차가 없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자녀가 兩性的 性役割 正體感을 가지게 되느냐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 나머지 집단의 分化에는 부모 변인 외에 다른 변인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性役割 正體感 集團에 따른 어머니의 養育行動 知覺

어머니의 양육 행동 지각에 대한 다변량 분석을 하기 위해 먼저 정상 확률 도면을 보았더니, 어머니의 양육행동 하위 변인에서 假定이 약간 위배되었다. Box's M 검증을 한 결과 또한 $p < .05$ 로 거부되었다. 이럴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한가지 대안으로는 현재의 다변량 분석 방법 중 가장 가정의 위배에 영향을 덜 받은 절차를 찾는 것이다. Pillai's Trace는 비정상 분포라 할지라도 정상분포의 α 수준에 가장 근접하며, 동편차로 부터의 이탈 또한 영향을 가장 덜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표 4> 어머니의 양육행동 변인에 대한 성역할 정체감과 성별간 이원 다변량 분석

변량원	가설 자유도	오차 자유도	F	P
성역할 정체감(A)	42.00	564.00	1.24672	.142
성별(B)	14.00	186.00	2.11914	.013*
AXB	42.00	564.00	.20857	.468

* $p < .05$

〈표 5〉 어머니 양육 행동 변인에 대한 성역할 정체감 집단의 동시 신뢰 구간 결과

하 위 변 인	비 교 집 단		
	남	-	여
수 용	.1463	/	-.2163
적극적 관여	.2794	/	-.0774
평 등	.0738	/	-.2458
인지적 독립	.0346	/	-.3166
호 기 심	.0559	/	-.3079
인지적 능력	.0777	/	-.2377
엄격하지 않은 통제	.2797	/	-.0537
순 응 심	-.0070	/	-.3890*
성취지향	.2485	/	-.0625
엄한 통제	.0620	/	-.2460
차별적 통제	.0449	/	-.3289
적대적 통제	.0929	/	-.2729
거 부	.0498	/	-.2338

비록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Pillai's Trace를 통해 검증하였다.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대한 다변량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4〉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상이하게 知覺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역할 유형별에 따른 차이와 성역할 정체감과 성별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어느 종속변인에 대해 성별간에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동시 신뢰구간 검증을 하였다. 결과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자녀의 性役割을 좀 더 區分한다고 보고한³⁴⁾ 반면, 위의 표에서 보듯이 본 연구에서는 순응심 변인에서 남자가 다르게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보고하고 있다. 딸은 아들에 비하여 어머니가 社會的 原則과 부모의 道德觀에 더 順應하기를 期待한다고 지각한다.

한 가지 가능한 해석으로는 부모 자신이 받은 훈육과 자녀에게 주는 훈육간에는 유의한 相關이 있기 때문에³⁵⁾, 어머니들 자신이 받았던 養育 方式 즉, 社會規律을 지키고 부모 밑에 順從해야 한다는 것을 그대로 딸에게 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 둘째, 부모는 자녀를 가짐으로써 자기 연장, 自己 不滅感을 느끼며 자신을 자녀에게 投射하고 반영한다. 우리들의 어머니는 '男尊女卑'의 사회에서 하고 싶은 일, 표현하고

싶은 감정을 抑壓하면서 살아 왔다. 이러한 不滿足을 자신과 비슷한 자녀 즉 딸에게 投射함으로써 딸을 통해 자신의 못다한 일을 實現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딸이 자신을 이어준다는 持續感(sense of continuity)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딸이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상처를 입고, 통제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등 딸을 자기 연장으로 생각한다.

셋째, 본 연구가 父母의 實際 行動을 측정했기 아니라 知覺한 行動이라는데 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아동은 자신의 여러 요인 및 복잡한 心理過程을 거치므로 부모의 實際 行動과 자녀가 知覺한 行動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실제 행동은 아들과 딸에 대해 유사하지만 자녀들은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행동을 다르게 지각할 수도 있다.

또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어머니 양육 행동 변인의 자료 처리에 있어 다변량 분석의 假定이 充足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비록 Pillai's Trace가 가정의 위배시에 가장 영향을 적게 받는 다변량 분석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소 Type I error의 增加를 가져온다. 이러한 영향으로 남녀차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IV. 結論 및 提言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청년기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과 그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간에는 관계가 있는가, 둘째, 청년기 자녀는 성별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을 다르게 지각하는가, 셋째, 청년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에 있어서 성역할 정체감과 성별간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다.

연구결과 兩性性 집단은 미분화 집단, 여성성 집단, 남성성 집단과는 구별되게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아버지가 좀 더 따뜻하며 인지적으로 격려한다고 지각한다. 아버지의 이러한 男性的, 女性的 特性은 아버지에 대한 모델링과 자녀에 대한 強化를 통해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성역할 정체감과 성별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상이하게 지각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즉 딸은 아들

보다 어머니가 社會의 原則과 부모의 道德觀에 더 順應하기를 기대한다고 指摘하였다.

이상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의 研究課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와 같은 삼원적, 또는 부-모-자녀-자녀와 같은 사원적 측면에서 해석되고 연구되기를 바란다.

둘째, 성역할 개념을 발달시키는 부모 외의 다른 매개 변인에 대한 연구와 보다 많은 종단 연구가 요청된다.

셋째,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외에 부모의 행동을 직접 관찰한다든지, 혹은 부모와의 면접을 통해 얻어진 결과들을 비교해 볼만하다.

참 고 문 헌

1. Cook, E.P., *Psychological androgyny*. New York: Pergamon, 1985.
2. Heibrun, C.G. *Toward a recognition of androgyny*. New York: Harper & Row, 1973.
3. Johnson, M.M., Fathers, mothers, and sex typing, E.M. Hetherington & R.D. Parke (Eds.), *Contemporary readings in child psychology*, (2nd ed.). New York: McGraw Hill Book Company, 1981.
4. Williams, J.H., Sex role identification and personality functioning in girls: A theory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41:1-8, 1973.
5. Kelly, J.A., & Worell, L., Parent behaviors related to masculine, feminine, and androgynous sex role orient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Psychology*, 4:843-851, 1976.
6. Spence, J.T., Helmreich, R., & Stapp, J., Ratings of self and peers on sex-role attributes and their relation to self-esteem and conceptions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29-39, 1975.
7. 정옥분, 한·미 양국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존감에 관한 비교문화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4권 2호, 1986.
8. 이홍립, 고교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 실현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9. 김선영,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 실현성 및 도덕성 발달과의 관계,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10. Rowe, D.C., Environmental and genetic influence on dimensions of perceived parenting: A twin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17:103-218, 1981.
11. 오성심, 이종승, 부모의 양육 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연구노우트, 11, 한국 행동과학 연구소.
12. Spence, J.T., & Helmreich, R.L., *Masculinity and femininity: Their psychological dimensions, correlates, and antecedents*.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8.
13. Parsons, T., Family structure and the socialization of the child. In T. Parsons & R.F. Bales (Eds.),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Glencoe, 1. Free Press, 1955.
14. Mead, M., Sex and temperament in three primitive societies. New York: Morrow, 1935.
15. Broverman, I.K., Broverman, D.M., Clarkson, F. E., Rosdenkrantz, P.S., & Vogel, S.R., Sex-role stereotypes and clinical judgements of mental heal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4:1-7, 1970
16. Spence, J.T., Comment on Lubinski, Tellegen, and Butcher's "Masculinity, Femininity, and Androgyny Viewed and Assessed as Distinct Concep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440-446, 1983.
17. Rebecca, M., Hefner, R., & Oleshansky, B. A model of sex role transcendence. In Kaplan, A.G. & Bem, J.P. (Eds.), *Beyond sex-role stereotypes: Readings toward a psychology of androgyny*.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6.
18. Block, J.H. Conceptions of sex role: Some cross-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8:515-230, 1973.
19. Freud, S., Three essay on sexuality. In J. Strachey (Ed.),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9). London: Hogarth, 1959. (Originally published, 1950).
20. Huston, A.C., Sex-typing. In P.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th ed., Vol. 4). New York: John Wiley, 1983.
21. Kohlberg, L., A cognitive-developmental and attitudes, In E. Maccoby (Ed.), *The development of sex difference*. Stanford, Ca.: Stanford Univ. Press, 1966.
22. Mischel, W., Sex typing and socialization. In P.

- H. Mussen (Ed.),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 (Vol. 2). New York : John Wiley, 1970.
24. Bussey, K., & Perry, D.G., Sharing reinforcement contingencies with a model: A Social-learning analysis of similarity effects in imitation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1168-1176, 1976.
 25. Hetherington, E.M., A developmental study of the effects of sex of the dominant parent on sex-role preference, identification, and imitation in childr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188-194, 1965.
 26. Lamb, M.E., The role of the father: An overview. In M.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Wiley, 1976.
 27. Becker, W.C.,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L. Hoffman & L.W.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1). New York: Rusell Sage Foundation, 1964.
 28. Biller, H.B., A multi-aspect investigation of masculine development in kindergarten age boys.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6**:89-139, 1968.
 29. Bandura, A., & Walters, R.H., *Adolescent aggression*. New York: Ronald Press, 1959.
 30. Constantinople, A., Masculinity-femininity: An exception to a famous dictum? *Psychological Bulletin*, **80**:389-407, 1973.
 31. Woods, M.M., *the relation of sex role categories to autobiographical factors*. Presented at the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1975.
 32. Stein, A.H., & Bailey, M.M., The socialization of achievement motivation in females. *Psychological Bulletin*, **80**:345-366, 1973.
 33. Spence, J., & Helmreich, R., Masculinity and femininity: their psychological dimensions, and antecedents. Austin & London: Vniversity of Texas Press, 1978.
 34. Bem, S.L., *Bem Sex-Role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Palo Alto, Calif: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81.
 35. Worell, L., & Worell, J., *Parent Behavior Form: PBF*. 1974.
 36. Kelly, J.A., Personality, parent behavior and cheating: Doctorial Dissertation. Univ. Kentucky, 1975.
 37. Olson, C.L., On choosing a test statistic in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Psychologist Bulletin*, **83**:579-586, 1976.
 38. Lynn, D.B., Fathers and sex-role development. *The Family Coordinator*, 1976, 25, 403-409.
 39. 김재은, 한국 가족의 심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4.